

중소·벤처기업 대표와의 오찬 간담회

경제회복은 기술혁신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기반을 만들어 가야하며, 효율성 제고를 통한 자원과 기술의 배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의 사회적 기반을 구축해 갑시다

요즘 경기가 나쁘니 이를 살려야 한다는 압력의 목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특히 수해 때문에 경제부처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곧 적절한 대책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성장 잠재력에 부담을 주는 무리한 부양책은 절대 쓰지 않겠습니다. 89년 이후 부양책이라고 나온 것들은 모두 경제질서를 교란해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장기적으로 경제회복을 위한 제 전망은 기술혁신을 통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규모에 비춰볼 때 전체적인 연구개발 투자, 그 중에서 공공부문 투자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투자의 양을 확대하는 것과는 별도로 투자의 효율성을 두 배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부의 정책방향입니다.

지금까지 기술개발 투자의 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이는 거꾸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연구개발 투자의 운용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문분야, 기반·핵심기술, 실제 현장에 응용되는 실용기술까지를 포괄해 단계적으로 효율성 있게 배분되고 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기술교육을 통한 기술인력 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집중투자하려고 합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동시에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기술 인력으로 하는 것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개 연말쯤 되면 방안들이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의 교육과정도 바꾸려고 합니다. 대학교육에서 기술교육을 치중하고 바로 기업 현장에 결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제기는 10여년 전부터 있어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 없이 성공시켜 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현재 집중적으로 검토와 정책개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기업도 대학의 연구개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대학을 나온 선배가 기업의 기술개발의 핵심이 되고 후배들이 대학에서 이를 지원하는 체제로 갈 것입니다. 앞으로 대학을 잘 활용하는 중소기업이 성공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특히 지방이 침체, 낙후돼 있는 만큼 지방대학과 기업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대학을 잘 활용하는 기업은 더욱 성공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수도권 경쟁력이 떨어지도록 하지는 않겠습니다.

한국에 노동쟁의와 파업이 많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교섭력이 커서 그런지 생산성 향상보다 높은 임금인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쳐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불평 반, 당부 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법과 원칙의 기본이란 점을 잘 이해해 주십시오.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뒤 그것이 되지 않고 불법이 있을 때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대화해야 하고 양보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정부가 공권력을 집행할 때 많은 국민들이 공감합니다. 공권력 투입은 최후의 수단임을 이해해 주십시오.

노사문제의 해결의 출발은 투명한 경영

대화과 타협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 되지 않아 공권력을 투입하면 이랬다저랬다 한다고 비판합니다. 이는 융통성 있는 정책의 집행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공권력만으로 한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노조가 귀족화, 권력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파업의 빈발과 강경성도 문제이지만 소수의 대기업 노동자 권익 중심의 노동운동이 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중소, 영세기업 노동자의 권익을 포섭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면에서 문제를 야기합니다. 온건, 합리적이면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포섭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사문제 해결에 있어 외부의 영향력을 빌리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기업의 노조 문제는 내가 책임지고 해결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져주십시오.

노사관계에 성공한 기업을 보면 기업경영이 투명한 곳들입니다. 여기에 종업원들에게 조금 더 줄 수 있는 기업이 포함됩니다. 다른 조건들이 비슷한 경우, 열심히 대화하는 기업이 성공했습니다. 내가 설득한다는 자세로 문제해결에 나서주십시오. 그래도 노동운동이 지나치게 나올 때는 정부가 그렇게 못하도록 하겠습니다.